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모형구축

박 공 주¹ · 정 향 미²

김해대학교 간호학과¹, 동의대학교 간호학과²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School Adjustment Model for Juvenile Delinquents

Gong-Ju Park¹ · Hyang-Mi Jung²

Nursing, Gimhae College¹
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University²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evaluate a structural model including relevant factors to identify the variables that affect school adjustment in juvenile delinquents. On the basis of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school adjustment of juvenile delinquents and on Bronfenbrenner's bio-ecological model, a hypothetical model was developed by setting home environmental factors (e.g., economic conditions, parent-child communication, parenting attitudes, peer relationships, and academic stress) as exogenous variables, and personal factors (e.g., ego ident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s endogenous variables.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January 29 to March 3, 2015 by a survey of 206 students attending junior high and high schools in City B.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and Amos 22.0 software.

Results: The verification of the hypothetical model indicated a good fit for the model: $\chi^2=0.009$ $df=13$, $\chi^2/df=2.161$, GFI=0.97, AGFI=0.90, RMSEA=0.07, CFI=0.98, TLI=0.95, and RMR=0.01.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ego identity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do not directly affect school adjustment of juvenile delinquents but influence it depending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delinquents. High levels of psychological well-being, better economic conditions, better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low academic stress were observed to contribute to better school life. Therefore, to improve the school adjustment of juvenile delinquents, appropriate measures need to be taken and programs need to be designed for improving ego identity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thus promoting psychological well-being.

Key Words: juvenile delinquency, school adjustment, development of model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인구가 198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최근 비행청소년의 수는 2011년 8만 6,621명에서 2013년에는 9만 694명으로 3년간 4,073명이 증가하여 그 수가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3). 최근 청소년 비행은 저연령화, 집단화, 보편화, 흉폭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성인으로의 건강한 발달적 전환을

*본 논문은 박공주의 박사학위 논문의 축약임.

교신저자: 정향미, 부산시 진구 영광로 176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전화번호: 051-890-1559, 팩스번호: 050-5182-6876

E-mail: hmjung@deu.ac.kr

투고일자: 2017년 7월 5일, 심사일자: 2017년 8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8월 30일

방해할 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으로는 성인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으로 변화하기도 한다(Kim et al., 2013).

학교는 청소년의 사회적·정서적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한 성장 환경이며 사회화 과정의 대행자이다(Shaffer, 1999).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는 생애주기의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성취목표와 적응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Cho, 2012). 청소년이 학교의 교육적 가치나 규범, 또는 교내 질서와 불일치하거나 불균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학교부적응이라 하며, 이는 학교에서 대인관계의 갈등이나 비행과 같은 행동적 특성을 초래한다(Park & Kang, 2011).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비행 등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다차원적 수준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생태학적 이론은 개인이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실체이며, 인간과 환경은 상호 호혜적인 관계에 있음을 강조한다(Kim et al., 2013). 생태학적 이론에서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관련된 유기체 요인으로 자아정체감과 심리적 안녕감과 미시체계요인으로 가정환경의 경제상태,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양육태도, 또래 환경의 또래관계, 학교환경의 학업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자아정체감은 자신과 비슷한 정체를 가진 사람에게 이끌리게 되는 특성이 있어서 청소년기에 긍정적으로 자아정체감이 발달하게 되면 성인기의 사회적, 심리적 요구에 잘 적응하게 되지만 부정적으로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면 역할혼동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Kim, 2014). 청소년기는 아동기의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점차 벗어나 객관적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객관적 시각은 자기를 향해서도 일어난다. 즉 자기의 존재를 객관적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지각하고 평가하여 이해하려는 것이 청소년기의 전형적인 특징이다(Kim et al., 2013). 자아정체감의 혼란으로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비행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에 쉽게 가담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 여부가 청소년기 이후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학교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고 볼 수 있다(Kim & Jang, 2015).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원활한 기능수준과 적응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학교환경은 초기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생활해야 하는 중요한 가정 밖의 환경으로 청소년기 학교생활적응의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은 청소년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학교생활을

잘 해나가며, 학교 폭력 대처 방식과 진로결정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Ryff, 1989).

미시체계인 가정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은 유기체에 가장 인접한 환경으로 유기체가 직접 경험하는 활동, 역할, 대인관계 유형을 말한다(Bronfenbrenner, 1977). 친밀하고 직접적인 사회환경이나 물리적 환경 안에서 겪게 되는 여러 경험 및 상황이며 유기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가장 가까운 인접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미시체계는 부모의 풍부한 정보 제공과 안정적인 애착 제공, 성역할 정체성 확립, 또래집단의 가치 있는 규범 수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발달을 촉진하며 미래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Kim et al., 2013) 학교환경은 가정환경, 또래환경과도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어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적 지표로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다(Kim et al., 2013).

선행연구에서 대부분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개인의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 등과 같은 내적인 특성들과 친구관계, 사회적지지 등과 같은 사회·환경적 특성들이 학교생활적응에 주는 영향력을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또는 취약한 측면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을 연구해왔다(Shin, 2006; Kim et al., 2013). 이러한 학교생활적응 관련 선행연구들은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일부 요인들을 단편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요인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의 내·외적인 다양한 변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Bronfenbrenner (1977)의 생태체계이론과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모형을 구축하고 관련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형구축을 통해서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행청소년의 비행의 예방과 관리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Bronfenbrenner (1977)의 생태체계이론과 문헌고찰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기 위해 자아정체감, 심리적 안녕감, 경제상태,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양육태도, 또래관계, 학업스트레스를 관련 변인으로 선정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이들 변인들 간의 구조적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3.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Bronfenbrenner (1977)의 생태체계이론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였다.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기 위한 외생변수(경제상태,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양육 태도, 또래관계, 학업스트레스), 내생변수(자아정체감, 심리적 안녕감), 결과변수(학교생활적응) 사이의 개념 틀이다(Fig. 1).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요인들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토대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 후, 모형의 적합성과 가설을 검증하는 공변량 구조분석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학교부적응 청소년 준거척도 기준(Mi-

nistry of Education, 2014)에 의해 교사 및 교우관계 소원, 학습 부진,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무단결석 및 잦은 결석, 교칙위반 및 퇴폐적 행동, 자기 비하 및 자기 도취감, 욕구 좌절 시 폭력 행동에 부합되는 중·고등학교 학생이다.

표본 수 산출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의 적정표본크기를 이용하였다. 투입변수(q)의 수가 12개 이하인 경우 200명, 13개 이상인 경우에는 $1.5q (q+1)$ 은 되어야 하며,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서 가장 일반적인 추정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으로, 이에 적당한 표본크기는 200을 단일 기준치로 사용한다(Woo, 2015).

본 연구의 투입변수는 8개이므로 대상자수는 200명이 적절하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250부를 배부하였고, 불성실한 설문지 44부를 제외한 최종 선정 대상자 수는 206명이었다.

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비행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학년, 성적, 가정의 경제수준, 가족의 동거형태, 부모님 교육, 부모님 직업유무의 7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Fig. 1. Theoretical framework.

2)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 도구는 Shin (2006)이 수정·보완한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교사관계(6문항), 교우관계(6문항), 학교수업(8문항), 학교규칙(5문항)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이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좋음을 의미한다. Shin (200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0.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0.92이었다.

3)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 도구는 Park (1996)의 한국형 자아정체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목표지향성(6문항), 자기수용성(6문항), 미래확신성(7문항), 주체성(6문항), 친밀성(6문항), 주도성(7문항)의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8문항이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 (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0.9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0.88이었다.

4)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도구는 Ryff (1989)의 심리적 안녕감 도구(Psychological Well-being Scale)를 Kang (2013)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기수용(6문항), 긍정적 대인관계(5문항), 자율성(4문항), 환경에 대한 통제력(4문항), 삶의 목적(5문항), 개인적 성장(4문항)의 6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8문항이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ang (201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0.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0.82이었다.

5)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의사소통 도구는 Min (1992)이 변안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도구(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를 사용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각각 20개 문항,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0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Min (1992)의 연구에서 아

버지 의사소통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0.86이었고, 어머니 의사소통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0.85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의사소통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0.70이었고, 어머니 의사소통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0.83이었다.

6)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 도구는 Seong (2012)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민주-자율(7문항)과 권위-통제(4문항)를 한 개 요인으로 하고, 애정-수용(8문항)과 적대-거부(5문항)를 하나의 요인으로 하여 총 두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문항이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자율이거나 애정·수용적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권위·통제이거나, 적대·거부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Seong (2012)의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 도구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 α 는 민주·자율은 0.74, 권위·통제는 0.68, 애정·수용은 0.79, 적대·거부는 0.68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민주·자율과 권위·통제 요인은 0.83이었으며, 애정·수용과 적대·거부요인은 0.86이었다.

7) 또래관계

또래관계 도구는 Dubow와 Ullman (1989)의 또래의 사회적지지(10문항), Asher와 Wheeler (1985)의 또래사이의 외로움(8문항), Oh (1997)의 위험친구 친밀도(4문항)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사회적지지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 α 는 0.83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0.87이었으며, 또래사이의 외로움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 α 는 0.90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0.87이었다. 위험친구친밀도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 α 는 0.74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0.84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0.82이었다.

8)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도구는 Oh와 Cheon (1993)이 개발한 척도 중 신뢰도 분석을 통해 재구성하여 작성한 학업스트레스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만 12세에서 만 18세에 이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적 스트레스(7문항), 시험 스

트레스(8문항), 수업 스트레스(11문항), 공부 스트레스(9문항), 진로 스트레스(7문항)의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2문항이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0.95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월 29일~3월 3일까지였으며, 자료 수집 전에 D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DIRB-201501-HR-R-004) 심의를 받았다. 본 연구는 B광역시 소재의 특수학교를 제외한 278개의 중·고등학교 중에서 부산대안교육센터에 의뢰된 학생의 비율이 많은 중·고등학교 50개교 중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30개교의 중·고등학교를 임의 선정하였다. 본 연구자가 해당 중·고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학부장교사를 만나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설문지 배부 방법은 학교의 방침에 따라 연구자가 담당학부장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동의를 구한 후 직접 배부하였으며, 설문지 회수는 조사 실시 후 직접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연구의 정확도를 위하여 연구대상자들과 개별 면담을 통하여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자발적인 동의를 구한 후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목적은 연구대상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설문지에 기입된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결과는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 결정은 자발적 의사로 하였고, 또한 철회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다. 연구대상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학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은 후 실시하였고, 부모님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학생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에 서면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스스로 작성하게 하였다.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작은 사례와 함께 서면 동의서와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1인당 약 20~30분 정도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

적 통계,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연구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설정된 가설모형의 검증은 구조방정식 모형분석법을 이용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 성별은 남학생이 191명(92.7%), 여학생이 15명(7.3%)이었고, 고등학생 126명(61.2%), 중학생 80명(38.8%)이었다. 성적은 중위권이 107명(52.0%), 하위권 53명(25.7%)순이었다. 경제수준은 그저 그렇다 135명(65.5%), 못사는 편이다 48명(23.3%)이었으며, 동거형태는 부모님과 거주 134명(65.0%), 한쪽 부모와 거주 61명(29.6%)이었다.

아버지 교육정도는 고졸 108명(52.5%), 대졸 이상 52명(25.2%), 중졸 이하 46명(22.3%)이었으며, 어머니 교육정도는 고졸 131명(63.6%), 대졸 이상 44명(21.4%), 중졸 이하 31명(15.0%)이었다. 아버지 직업에서는 있다가 187명(90.8%)이었고, 어머니 직업에서도 있다가 136명(66.0%)이었다(Table 1).

2. 측정변수의 서술적 통계 및 상관관계

연구변수들의 서술적 통계와 본 연구에서 표본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Table 2)에서, 공변량 구조모형의 왜도지수의 절대 값이 3.0보다 작고, 첨도지수의 절대 값이 10.0보다 적어 정규분포의 조건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0.9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가설검증에 앞서 본 연구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측정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0.6 이하로 확인되어 측정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Woo, 2015).

3. 가설적 모형의 검증

1)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적합도 지수를 분석한 결과 $\chi^2=28.1$ ($p<0.009$), df (자유도)=13, 표준 χ^2 (χ^2/df)=2.161, GFI=0.97, AGFI=0.90, RMSEA=0.07, CFI=0.98, TLI=0.95, RMR=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91 (92.7)
	Female	15 (7.3)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80 (38.8)
	High school	126 (61.2)
Grade	High	46 (22.3)
	Middle	107 (52.0)
	Low	53 (25.7)
Economic status	Upper	23 (11.2)
	Middle	135 (65.5)
	Lower	48 (23.3)
Family members	Parents	134 (65.0)
	Single parent	61 (29.6)
	No parent	11 (5.4)
Father's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46 (22.3)
	High school	108 (52.5)
	≥College	52 (25.2)
Mother's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31 (15.0)
	High school	131 (63.6)
	≥College	44 (21.4)
Father employed	Yes	187 (90.8)
	No	19 (9.2)
Mother employed	Yes	136 (66.0)
	No	70 (34.0)

로 모든 적합지수가 권장수준을 만족하였다.

2) 가설적 모형의 모수추정

가설적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Fig. 2)에서,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경로는 경제상태($\beta=0.150$, $p=0.015$), 학업스트레스($\beta=0.174$, $p=0.028$), 심리적 안녕감($\beta=0.423$, $p<0.001$)으로 설명력은 29.5%이었다.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경로는 경제상태($\beta=.125$, $p=0.022$), 학업스트레스($\beta=-0.473$, $p<0.001$)로 설명력은 42.8%이었다.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경로는 경제상태($\beta=0.114$, $p=$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Observed Variables

(N=206)			
Variables	M±SD	Skewness	Kurtosis
School adjustment	3.20±0.58	0.49	1.77
Organism			
Ego identity	2.83±0.42	0.05	1.81
Psychological well-being	2.93±0.36	-1.27	6.33
Microsystem			
Parent-child communication	3.15±0.35	1.42	5.37
Parenting attitudes	2.39±0.50	0.41	1.58
Peer relationships	2.18±0.42	0.94	0.70
Academic stress	2.53±0.63	-0.19	0.79

Fig. 2. Path diagram for the hypothetical model.

x1=Economic status; x2=Father communication; x3=Mother communication; x4=Democratic, Autonomy, authority, control; x5=Affection, Acceptance, Hostility, rejection; x6=Peer relationships; x7=Academic stress; x8=Ego identity; x9=Psychological well-being; x10= School adjustment. * $p<0.05$; ** $p<0.01$.

0.009), 부모-자녀 의사소통($\beta=0.252$, $p<0.001$), 부모양육태도($\beta=0.264$, $p=0.019$), 또래관계($\beta=0.167$, $p=0.029$), 학업스트레스($\beta=-0.116$, $p=0.038$), 자아정체감($\beta=0.780$, $p<0.001$)으로 설명력은 66.4%이었다.

3) 가설적 모형의 효과분석

본 연구모형의 외생변수들이 내생변수에 영향을 주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석하였다(Table 3). 학교생활적응에는 자아정체감의 간접효과($\beta=0.03$, $p=0.009$), 총효과($\beta=0.39$, $p=0.009$)가 유의했고, 심리적 안녕감은 직접효과($\beta=0.42$, $p<0.001$), 총효과($\beta=0.42$, $p<0.001$)가 유의했다. 경제상태는 직접효과($\beta=0.15$, $p=0.015$), 간접효과($\beta=0.09$, $p=0.007$), 총효과($\beta=0.24$, $p=0.01$)가 유의했고,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간접효과($\beta=0.13$, $p=0.033$)가 유의했고, 학업스트레스는 직접효과($\beta=0.17$, $p=0.028$) 및 간접효과($\beta=-0.13$, $p=0.012$)가 유의했다. 부모양육태도에서는 직접효과($\beta=0.07$, $p=0.649$), 간접효과($\beta=0.04$, $p=0.565$), 총효과($\beta=0.11$, $p=0.445$)와 또래관계에서 직접효과($\beta=0.18$, $p=0.092$), 간접효과($\beta=0.10$, $p=0.089$), 총효과($\beta=0.28$, $p=0.057$)가 유의하지 않았다.

자아정체감에는 경제상태($\beta=0.12$, $p=0.022$)와 학업스트

레스($\beta=-0.47$, $p<0.001$)에서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했고, 부모-자녀의사소통($\beta=0.06$, $p=0.484$), 부모양육태도($\beta=-0.16$, $p=0.221$), 또래관계($\beta=0.07$, $p=0.421$)는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심리적 안녕감에는 자아정체감의 직접효과($\beta=0.78$, $p<0.001$)와 총효과($\beta=0.78$, $p<0.001$)가 유의했고, 경제상태에서 직접효과($\beta=0.11$, $p=0.009$), 간접효과($\beta=0.09$, $p=0.037$), 총효과($\beta=0.21$, $p=0.009$)가 유의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직접효과($\beta=0.25$, $p<0.001$), 총효과($\beta=0.22$, $p=0.037$)가 유의했고, 부모양육태도($\beta=0.26$, $p=0.019$)와 또래관계($\beta=0.16$, $p=0.029$)는 직접효과가 유의했고, 학업스트레스는 직접효과($\beta=-0.11$, $p=0.038$), 간접효과($\beta=0.36$, $p=0.005$), 총효과($\beta=-0.25$, $p=0.005$)가 유의했다.

고 찰

본 연구는 Bronfenbrenner (1977)의 생태체계이론과 문헌고찰에 근거하여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요인들을 규명하고 요인간의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

Table 3.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for the Hypothetical Model

(N=206)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Standardized direct effect	Standardized indirect effect	Standardized total effect	SMC
School adjustment	Ego identity	0.06 (0.570)	0.03 (0.009)	0.39 (0.009)	29.5
	Psychological well-being	0.42 (<0.001)	—	0.42 (<0.001)	
	Economic status	0.15 (0.015)	0.09 (0.007)	0.24 (0.010)	
	Parent-child communication	0.03 (0.695)	0.13 (0.033)	0.17 (0.141)	
	Parenting attitudes	0.07 (0.649)	0.04 (0.565)	0.11 (0.445)	
	Peer relationships	0.18 (0.092)	0.10 (0.089)	0.28 (0.057)	
	Academic stress	0.17 (0.028)	-0.13 (0.012)	0.03 (0.828)	
Ego identity	Economic status	0.12 (0.022)	—	0.12 (0.022)	42.8
	Parent-child communication	0.06 (0.484)	—	0.06 (0.484)	
	Parenting attitudes	-0.16 (0.221)	—	-0.16 (0.221)	
	Peer relationships	0.07 (0.421)	—	0.07 (0.421)	
	Academic stress	-0.47 (<0.001)	—	-0.47 (<0.001)	
Psychological well-being	Ego identity	0.78 (<0.001)	—	0.78 (<0.001)	66.4
	Economic status	0.11 (0.009)	0.09 (0.037)	0.21 (0.009)	
	Parent-child communication	0.25 (<0.001)	0.04 (0.547)	0.22 (0.037)	
	Parenting attitudes	0.26 (0.019)	-0.12 (0.398)	0.13 (0.453)	
	Peer relationships	0.16 (0.029)	0.05 (0.428)	0.22 (0.056)	
	Academic stress	-0.11 (0.038)	0.36 (0.005)	-0.25 (0.005)	

Abbreviation: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며, 심리적 안녕감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Jang (2015)은 교사와의 관계와 학교생활전반 측면에서 가정환경 수준이 보통이거나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한다고 하였으며, Daniel (2010)은 빈곤층 청소년이 비빈곤층 청소년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낮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에는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서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수준은 청소년의 신체적·인지적 발달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발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Kim et al., 2013). 빈곤가정의 경우 부모가 청소년들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삶에 대한 걱정과 무력감으로 인해 다른 소득 계층보다 적정하지 못한 양육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Park & Shim, 2012).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의 자녀들은 신체적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쉽고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부모의 지지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정도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교육적 관심과 적절한 생활지도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요인으로 하여 간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연구(Kim & Lee, 2010) 결과와 일치한다.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부모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을 획득하거나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기능하도록 돕는데 부모의 의사소통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부모는 자녀들에게 친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선행연구(Kim & Lee, 2010; Lim & Chun, 2012)에서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비행, 가출 등의 문제행동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고, 학교적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로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녀가 부모와의 대화를 주저하거나 회피하고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적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증진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획득할 수 있

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Kang과 Ahn (2015)의 연구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좋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게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온화하고 허용적일 때 청소년들은 사교적이고 독립적이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개인으로 성장하는 반면, 냉담하고 지배적인 의사소통은 낮은 자긍심을 가지게 되며 부모에게 무관심하며 반항하기도 하여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자아정체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는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해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과의 긍정적이고 지지와 격려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녀가 경험하는 가정에서의 의사소통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녕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학교와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가정에서 능동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와의 교감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부모의 대화 방식 변화와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부모양육태도가 좋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You와 Yi (2010)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는데,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기 통제력을 발달시켜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스스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im과 Chun (2012)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학생은 부의 의사소통, 여학생은 부모의 양육태도라고 하여 성별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향후 성별을 구분한 반복적 분석이 요구된다.

또래관계는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친구로부터 많은 지지와 도움을 받을 경우 학교생활에서 자신감과 안정감을 갖게 되며, 지지적인 친구관계를 통하여 학교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학교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래간의 친밀한 상호작용이 지속될 때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Troop-Gordon et al., 2010)에서 또래관계가 안정적이고 좋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비행청소년들도 또래와 잘 어울리며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또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uchanan & Bowen, 2008).

학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심리적 안녕감,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청소년들도 일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지나친 학력위주의 교육환경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Lee 등(2010)은 학업중단의 위험요인으로 규율에 대한 갈등, 학교 및 학업에 대한 거부감을 제시한바 있다.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리정서적으로 혼란스러워지기 쉬운 청소년 시기에 학교나 교육현장에서는 학업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안을 통해 학교생활에 소외감과 부적응을 최소화하여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행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학업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부모양육태도는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Kang과 Ahn (2015)의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의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정서기능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청소년의 심리적 요소인 부정적 감정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래관계는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래관계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알려져 있으나(Im & Lee, 2015), 또래관계의 하위 영역 중 위험친구 친밀도, 사회적지지자 본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새로운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으로 이 시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여하고 있는 요소는 가정, 학교, 또래관계 등 다양한 환경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 청소년기의 비행여부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이 비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활동이 필요하다.

자아정체감과 심리적 안녕감 간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자신의 능력과 효용에 대한 자신감이 높으면,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기능하고 삶의 전반에 걸쳐 만족하는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

수 있다(Abu-Rayya, 2006). 이러한 사춘기의 변화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는 신념은 심리적 안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정체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없으나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요인으로 하여 간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h와 Song (2012)의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학업성취도가 높고, 교사관계와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학생일수록 학생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을 어떻게 발달시켜 나가고 있는가에 따라 학교생활적응 양상의 발달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은 학교생활적응과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Park & Kang, 2011)의 결과와 일치한다. 심리적 안녕감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때,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생으로서의 역할이며,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기의 핵심적인 발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라는 사회에서 잘 기능한다는 것은 대인관계의 갈등이나 문제행동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교육 현장에서 비행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키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유기체 요인인 자아정체감과 심리적 안녕감은 직접 및 간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미시체계 요인인 경제상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부모양육태도, 또래관계, 학업스트레스는 자아정체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고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아정체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중재프로그램,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또래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등이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는 Bronfenbrenner (1977)의 생태체계이론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모형을 구축하여 직·간접 경로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모형은 권장수준 이상의 적합도를 가짐으로써 대상자의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경제상태, 학업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이었고, 자아정체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는 경제상태, 학업스트레스였고,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자아정체감, 경제상태,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양육태도, 또래관계, 학업스트레스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본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모형임이 확인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토대로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증대시키기 위해 학교 및 지역사회의 청소년기관에서 자아정체감과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일 지역 학생만을 대상으로 선정 하였으므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 모형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 다루지 않은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조절 및 매개 효과를 지닌 다양한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Abu-Rayya HM. Ethnic identity, ego ident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ixed-ethnic Arab-European adolescents in israel. *Br J Dev Psychol* 2006;24(4):669-79.
- Asher SR, Wheeler VA. Children's loneliness: A comparison rejected and neglected peer status. *J Consult Clin Psychol* 1985;53(4):500-5.
- Bronfenbrenner U. Toward an experimental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 Psychol* 1977;32:513-31.
- Buchanan L, Bowen L. In the context of adult support: the Influence of peer support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school students. *Child Adolesc Social Work J* 2008;25(5):397-407.
- Cho JA. Identifying latent classes in Adolescents'school adjustment and testing eco-system variables as predictors of latent classes. *Studies on Korean Youth* 2012;23(1): 277-309.
- Daniel TLS. Perceived parental control processes, parent-child relational qual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Chinese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economic disadvantage. *J Genet Psychol* 2010;166(2):171-88.
- Dubow EF, Ullman DG.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 Clin Child Psychol* 1989;18(1):52-64.
- Im JW, Lee Yn. The mediated effects of ego-identity between peer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Educatuon Research* 2015;38:115-29.
- Kang MH. The mediating effects of hope and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Chongsonyonhak Yongu* 2013;20(6):265-93.
- Kang WD, Ahn GYR. The influence of parental nurturing attitude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preparedness of high school students. *Hanguk Simni Hakhoe Chi Kongang* 2015;20(4):739-64.
- Kim JH, Ro SH, Lee SS, Kwang DK, Park. JS, Lee DW, et al. Youth flying theory. Seoul; Chongmok Publishing Co; 2013.
- Kim JM, Lee YL.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parentification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10;28(3):13-26.
- Kim JU, Jang IY.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mental health between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and adaptation to school of early adolescents in Schools with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jec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5;15(3):467-76.
- Kim YA. A study on the inspection of mediation effect between ego and career identity : focused on the youth activities and the Perception of community. [doctoral dissertation]. Incheon; Sungsan Hyo University; 2014.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3.
- Lee JY, Kang SY, Kim HJ, Lee YY, Yang EJ. Risk and protective factors perceived by school dropou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10;18(2):225-41.
- Lim JH., Chun JS. Effect of parenting behaviors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school adjustment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Chongsonyonhak Yongu* 2012;19(8):169-90.
- Min HY. The relation between juvenile delinquency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Korean J Child Stud* 1992;13(1):112-24.
- Ministry of Education. 2014.
- Oh MK. The effects of sensation seeking and socialization on risk behaviors in adolescent girls and boy. [doctoral dissertation]. Seoul; Ewha Womens University; 1997.
- Oh MH, Cheon SM. Analysis of academic stressors and symptoms of juveniles and effects of meditation training on academic stress reduction.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1993;15:63-96.
- Oh SY, Song S. The effect of ego-identity, family functioning and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to adolescent's school life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

- dustry Association 2012;6(1):125-38.
- Park AC. Preliminary development of Korean adolescent ego-identity sca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96;15(1):140-62.
- Park HY, Kang SH. The relationships of the perceived attachment, the school adjustment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 Fish Mar Sci Edu* 2011;23(1):43-55.
- Park SJ, Shim HY. The effect of positive parental attitude, ego-resiliency, self-regulated learning structurally on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in poverty. *Chongsonyonhak Yongu* 2012;19(12):113-35.
- Ryff CD.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 Pers Soc Psychol* 1989;57(6):1069-81.
- Seong HJ. The influence of parents nurturing attitude on violent adolescents' ego state and their aggression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Baekseok National University; 2012.
- Shaffer DR.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 adolescence. Brooks/Cole 1999.
- Shin SY.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adjustment, coping types of stress and self-efficacy in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Kyungnam: Ky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6.
- Troop-Gordon W, Visconti KJ, Kuntz KJ. Perceived popularity during early adolescence: links to declining school adjustment among aggressive youth. *J Early Adolesc* 2010;14:125-51.
- Woo JP.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Han-narae Publishing Co; 2015.
- You YD, Yi EJ.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10;12(4):91-115.